

# ‘셔틀콕 천재’ 안세영 세계대회 시즌 3승

〈광주체고〉

일본 아키타 마스터스서 스즈키 하루코 누르고 우승

‘셔틀콕 천재’ 안세영(광주체고2)이 세계 대회에서 울들어 3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계랭킹 30위 안세영은 18일 일본 아키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투어 슈퍼 100 대회인 2019 아키타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261위 스즈키 하루코(일본)를 2-1(21-10, 17-21, 21-14)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안세영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중학생이던 2017년 12월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아 주목을 받았던 안세영은 국가대표 2년 차에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BWF 300 대회인 뉴질랜드 오

폰에서 생애 첫 BWF 월드투어 우승을 달성했고, 캐나다오픈에서 두 번째 BWF 월드투어 정상에 올랐다.

5월 세계혼합단체배드민턴선수권에서는 세계랭킹 1위 타이쯔잉(대만)을 격파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인도 하이데라바드 오픈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혼합복식 고성현-엄혜원(이상 김천시청)은 야마시타 교헤이-시노야 나루(일본)를 2-0(21-10 21-17)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7일 준결승에서 패한 혼합복식 신에 왕찬(김천시청)-정나은(화순군청)은 최종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 13승 다음 기회에...

류현진 애플랜타전 피홈런 2개 4실점 패배

류현진(로스앤젤레스다저스)이 동점 상황에서 연속 타자 홈런을 허용하며 시즌 13승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18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플랜드 브레이브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5.2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 6안타를 내주고 4실점 했다. 볼넷은 1개만 내줬고, 삼진은 5개를 잡았다.

류현진이 4실점 이상을 한 건, 6월 29일 콜로라도전(4이닝 7실점) 이후 50일 만이자 올 시즌 두 번째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45에서 1.64로 나빠졌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하고 있다.

3회와 6회가 아쉬웠다. 류현진은 0-0이던 3회 말, 첫 타자 아

데이니 에체베리아에게 볼 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회심의 컷 패스트볼을 던졌다. 다저스 포수 러셀 마틴은 삼진을 확신했지만, 주심은 볼을 선언했다.

삼진 잡을 기회를 놓친 류현진은 풀 카운트에서 우익수 쪽 2루타를 맞았다. 투수 마이크 폴티네비치는 희생 번트로 에체베리아를 3루에 보냈다.

류현진은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볼넷을 내줘 1사 1-3루에 몰렸다. 이어 오지 올비스에게 좌익수 쪽으로 날아가는 2타점 2루타를 허용했다.

류현진은 2-2로 맞선 6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조시 도널드슨에게 중월 솔로 홈런을 얻어맞았다. 류현진이 홈런을 내준 건, 6월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50일, 7경기 만이다. /연합뉴스

# 영호남 원정대 중국 하바설산 정상 올라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 영호남 합동 하바설산(哈巴雪山) 원정대(단장 임승진) 대원들이 지난 16일 경사진 설릉구간을 지나 정상에 올랐다. 대원들은 이날 새벽 2시 해발 4100m의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 고소증세를 이겨내며 7시간 동안 끝에 해발 5396m의 정상에 섰다.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등반은 영호남 산악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중국 윈난성(雲南省) 상그릴라(香格里拉)=송기동 기자 song@

# 유민상 “세계 치든 높게 치든 110m 정도만 치면 되죠”

덕아웃 T 특특

▲저도 깜짝 놀랐어요 = 사람들을 놀라게 한 끝내기 주인공이다. 유재신은 지난 16일 SK전에서 0-0으로 맞선 9회 말 1사 1루 상황에 최형우의 대주자로 들어갔다. 유민상의 좌장간 안타 때 3루까지 향한 유재신은 안치홍의 3루 땅볼이 나오자 홈으로 뛰어 들었다. 결과는 3루수 최정의 악송구로 인한 KIA의 끝내기 승. 하지만 이때 유재신은 빛나던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오른 포수 이재원과 부딪혔다. 잠시 움직이지 못했던 유재신은 발로 베이스를 찍으면서 결승 득점을 만들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충돌 장면. 유재신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포수한테 깔려서”라면서 웃었다. “큰 땅볼이 나와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포수) 이재원이 왼쪽에서 서 있어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하려고 했는데 점프를 해서 왔다.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깔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유재신은 “자고 일어나니 목 부위가 조금 불편했다”고 말했다.

▲뭘 110m 정도만 치면 되는 거죠 = 장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민상. 지난

15일 SK와의 경기에서 소사를 상대로 우월 솔로포를 터트렸던 유민상은 17일 KT와의 경기에서도 4회 선두타자로 나와 김민수를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겼다. 유민상은 “야구는 타이밍이다”며 “세계 치든, 높게 치든, 낮게 치든 110m 정도만 치면 된다”고 넉살을 부렸다. ‘홈런 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KIA는 챔피언스필드 외야 우측에 홈런 존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유민상의 홈런 타구는 홈런 존 오른쪽에 떨어졌다. 이에 유민상은 “자 옆으로 쳤다. 너무 아까웠다. 쳤으면 잔치했다”며 다시 한번 웃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 마음과 다른 주를 보낸 박찬호다. 올 시즌 달라진 공격력으로 KIA의 깜짝 스타로 떠오른 박찬호지만 SK 2연전 포함 세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17일 KT와의 경기에서 모처럼 안타를 기록하며 한숨을 돌린 박찬호. 공격에서는 아쉬웠던 한 주였지만 박찬호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3루를 지키면서 수비에서는 여전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찬호는 “수비는 당연한 것이다”며 “안타는 운이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옴 동점 프리킥골 광주FC 살렸다

K리그 2 24라운드

부산과 1-1 무승부

광주FC가 ‘팀워크’로 선두질주를 이어간다.

광주는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 2 24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2위 부산과의 격차를 벌리지는 못했지만 광주는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 1을 보태며 선두질주에 힘을 얻었다.

부산에는 패배와 같은 무승부였다.

전반 시작부터 광주가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면서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선제골은 부산의 몫이었다.

후반 13분 부산 호물로의 중거리 슈팅이 눈 깜짝할 사이 광주의 골망을 흔들면서 팽팽하던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광주 박진섭 감독이 후반 15분 이희균을 빼고 여름을 투입하는 등 일찍 교체카드를 사용해 분위기를 전환해 나갔다.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41분 광주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여름과 이옴이 공 앞에 자리를 잡았다. 여름이 먼저 움직였지만 공을 때린 건 이옴이었다. ‘원발의 달인’ 이옴은 환상적인 킥으로 포물선을 그렸다. 잠시 뒤 상대 골키퍼가 이렇다 할 움직임도 취할 수 없었던 ‘이옴표 프리킥골’이 다시 한번 기록됐다.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4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 홈경기에서 이옴의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이 터지자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부산의 추격 의지가 꺾인 순간이었다. 부산은 올 시즌 광주와 세 번의 맞대결에서 3무를 기록하고 있다. 모두 선제골을 넣고도 리드를 지키지 못한 무승부였다.

광주 박진섭 감독은 “전반에 플레이가 잘 이루어져서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후반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겼다는 부분에서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동점골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옴은 “동점골이라서 아쉽지만 우리 선수들이 워낙 다 열심히 해줘서 그렇게 프리

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기회를 만들어준 동료들을 언급했다.

특히 기회를 양보해준 여름에게 이옴은 감사했다. 이옴은 “원래 여름이랑 약속했다. 처음 (프리킥) 나면 다 제가 잘 줄 아니까 여름이가 차기로 약속했다”며 “욕심도 나고 자신 있었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여름이가 양보해줘서 잘 수 있었다”고 웃었다.

피나는 노력으로 쌓은 이옴의 자신감에 동료의 믿음이 더해지면서 연출된 극적인 프리킥골이었다.

후반 44분 부산 호물로의 위력적인 프리

킥을 막아내는 등 몇 차례 슈퍼 세이브를 선보인 골키퍼 윤평국도 자신보다는 동료

를 이야기했다. “옴이 형 덕분에 우리 팀이 살았다. 호물로의 골을 막을 수 있었는데 못해서 아쉽다”며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한 윤평국은 “소중한 승점 1점이지만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 준비 잘해서 다음 경기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내가 아닌 동료를 먼저 이야기하는 광주가 부산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승격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맨시티 VAR 판정에 또 올라

손흥민 빠진 토트넘에

골 판정 무효로 무승부

프리미어 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맨체스터 시티가 VAR(비디오 판독)에 또다시 올랐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토트넘과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가브리엘 제수스(22·브라질)의 골이 VAR 판정 끝에 무효가 되면서 2-2로 비겼다.

토트넘은 맨 시티에 무려 30개의 슈팅을 허용했으나, 유효 슈팅 2개(전체 슈팅 3개)를 모두 골로 연결하는 결정적으로 무승부를 따냈다.

지난 시즌 맨 시티는 ‘트레블’(리그 우승·컵 대회 우승·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했지만 토트넘에 발목이 잡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 경기 2차전에서 4-3으로 리드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슈트 VAR 판정으로 취소돼 원정 다득점에 의해 탈락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여름 이적시장에서 로드리 에르난데스(23·스페인) 등을 영입하며 토트넘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았다. 애초 맨시티는 이날 경기에서 낙승을 예감했다. 토트넘의 주전 손흥민, 델레알리(23·잉글랜드) 등이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초반 주도권은 맨 시티가 잡았다. 전반 20분 케빈 더 브라위너(28·벨기에)가 우측면에서 올려준 그림같은 일

리 크로스가 박스 안에 있던 스티어링에게 연결했다. 스티어링은 ‘백패 크로스’를 놓치지 않고 헤더로 연결, 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의 반격도 매세웠다. 선제골을 내줬지만 3분 만에 이번 시즌 명예 회복을 노리는 에릭 라멜라(27·아르헨티나)의 중거리 슈트로 따라 붙었다.

재반격에 나선 맨 시티는 전반 35분 더 브라위너가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안으로 찰려준 크로스를 세리히오 아게로(31·아르헨티나)가 제치듯게 찰라 먹으며 추가골을 넣어 2-1 상황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후반 11분 해리 윙크스(23·잉글랜드) 대신 루카스 모우라(27·브라질)를 교체 투입 반전을 노렸다.

모우라는 곧바로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라멜라가 차출된 볼을 헤더로 연결하며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냈다. 모우라는 이날 체 투입 15초만에 첫번째 터치로 골을 기록했다.

맨시티는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제수스가 멋진 감아차기로 넣었다. 제수스는 3-2 승리를 확정하는 골을 자축하는 유쾌한 세메타리를 펼쳤다. 기쁨도 잠시 VAR 판정결과 제수스에게 볼이 연결되기 직전 수비수 에드리크 라포르트(25·프랑스)의 팔에 볼이 맞았다는 판정이 나와 득점이 취소됐다.

웨스트햄과 1라운드에서 올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 도입된 VAR 판정 ‘무효골 1호’의 주인공이 됐던 제수스는 2라운드에서도 VAR 판정에 의해 골이 무효되는 불운을 겪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